

# 막무가내 공사에 수행환경 침해

## 총회중 총본산 수진사 주변 개발에 몸살 종단협 대책위 구성...경기도 등에 진정서

남양주시 호평동 총회중 총본산인 수진사(총무원장 남정)가 도로개설과 고층아파트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수진사 옆으로 8차선 도로가 예정돼 있으며, 도로 건너편에는 S건설이 시행하고 D건설이 시공하는 22층 고층아파트가 건립될 계획이다. 특히 도로의 경우 수진사가 반대 입장을 피력하자 약간 비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회중 총무원장 남정 스님은 "도로와 아파트가 건설되면 수진사는 일조권 침해와 더불어 광음 분진으로 인한 수행환경 침해가 우려된다"며 "이렇게 되면 총무원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종교교육이나 회의 등은 아파트가 건립되는 3-4년 동안 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산하 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는 7월 10일 회의실에서 '대한불교 총회중 총본산 수진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에 만오(총회중 前 중회의장), 부위원장에 남오 스님(총무원장)이 선임됐다.

대책위는 건설사의 수혜자 말살에 대한 부담성을 지적하고, 원만한 합의나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종단협도 회장 지관 스님 명의의 진정서를 경기도와 남양주군에 10일자로 접수했다. 종단협은



수진사 대책위 기자 간담회 모습.

진정서에서 "건설사의 막무가내 식 공사로 수진사 수행환경 보존과 종교 활동에 큰 피해가 예상됨으로 양자 간에 원만한 합의나 대책이 마련된 후 허가가 검토되도록 깊이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 조계사, 학업성취 특강 31일부터 학부모 대상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가 3차에 걸쳐 입시생 학부모를 위한 학업성취 특강을 실시한다.

1차는 7월 31일 오후 2시 대웅전에서 '입시 100일!'을 주제로 이석록 메가스터디 교육연구소장을 초청해 진행한다. 2차는 8월 7일 오후 2시 열리며 김수현 생활상담소장이 '수험생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해 강의한다. 10월 17일 오후 3시 30분 열리는 3차에서는 이만기 UA 중앙교육 평가사가 '수능 직전, 당일, 직후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공부법과 자녀 건강관리 및 지도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양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많은 학부모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732-2183 남동우 기자

### 社 告

## '자비명상 지도자' ★ 펼쳐주세요

현대불교신문사는 나눔의 기쁨 공동체와 자비명상 초급지도자 과정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주제	일정	프로그램 주제	내용
불교 상담의 접목	1주	교육 일정에 대한 소개 마음나누기, 자비명상	교육의 목적과 의의에 대한 설명, 자비명상 안내와 실습하기
	2주	명상으로	자기 긍정 명상, 쌀 감사 명상
	3주	이어지는 프로그램	구나, 갯지, 감사 명상, 유서 쓰기
자비로운 대화 훈련	4주	대화 훈련 1 -듣기와 반응하기	신도 일반인들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방법 익히기
	5주	대화 훈련 2 -칭찬하기	신도·사찰 종사자들과 원활한 관계를 위한 칭찬 연습하기
	6주	대화 훈련 3 -공감	타인의 말을 효과적으로 공감하여 표현하는 방법 익히기
	7주	신도대화(상담)실습	신도들과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전 주에 배웠던 기법을 응용해 실습
	8주	정리하는 마당	스님들과 마음 나누고 칭찬 주고받기

### 4박 5일 집중 과정 일정표

시작하는 날	초기 - 과도기 - 작업 - 종결단계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09:00~12:00(3)	이론 강의와 실습 1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마음 나누기 마무리
14:30~17:30(3)	오래엔테이션 참가자 소개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19:00~21:00(2)	집단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집단상담

- 장소 : 법원사(8주교육), 집중수행과정 (정소 일정 추후 공지)
- 기간 : 8월 13일~10월 1일
- 대상 : 스님(15~20명), 재가자(15~20명)
- 일시 : 매주 월요일(신오요일 2~4시), 재가자(오후 7~9시)
- 접수 방법  
- 1단계 : 원서접수(7월 4일~8월 3일)-자기소개서(사전접부), 수행이력서  
\*접수는 팩스 또는 이메일 (godory700@hanmail.net)
- 수업료 : 200만원
- 특전 : 나눔의 기쁨 공동체명사 인증 명사지도자 초급자격증 부여
- 문의 : TEL. (02)2004-8237, 팩스 : (02)737-0698
- 주최 : 나눔의 기쁨 공동체, (주)현대불교신문
- 감사 : 마가 스님

## “화합 통한 원용총림 실현에 최선”

###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진산식에 사부대중 5000여명 참석



영축도림 방장 원명 스님이 정우 스님(오른쪽)에게 주지직인을 전달하고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 제27대 주지 정우 스님 진산식이 7월 12일 통도사 금강계단 앞 특설법당에서 봉행했다.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봉행된 진산식에는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과 보성, 지혜, 환안, 월서, 초우, 혜정, 혜승 스님 등 조계종 원로의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 종단 지도자와 각 교구본사 주지스님이 대거 참석했다.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등 지역 기관장, 순화구 前 경기도지사, 이상득 국회 부의장 등 정치계 인사 50여명도 참석했다. 대만 불광산사 주지 신페이(心培) 스님과 일본 정행사 주지 다케하라 지묘(竹原智明) 스님 등 외국인 스님도 10여명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다섯 번의 명종으로 시작된 진산식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적멸보궁 금강계단에서 불조의 증명과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이루어지는 통도사 주지 진산식이, 부처님께서 이계위사(以戒爲師)하라는 부촉을 이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정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대중의 공의를 묶어 원용산림을 살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는 통도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진산식에서 정우 스님은 경남도와 부산광역시 울산시 양산시에 특근노인 지원을 위한 백미 4000포대를 전달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3000만원의 장학금도 전달했다.

통도사=하성미 기자

## “불교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 첫 걸음”

### 전통불교문화센터 착공식



한국불교 전통문화 개발과 육성, 불교인재개발의 중심시설이 될 전통불교문화센터 착공식이 7월 13일 공주 마곡사 인근 센터건립 현장에서 거행됐다.(사진)

1부 착공법요식에 이어 2부에서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증촌 스님의 경과보고, 조계종 총무원장 지

남동우 기자

## 날마다좋은날, 사업 확정 전문 이사진 대거 영입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김의정)이 이사진을 보강하며 하반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투자자의 길을 열어 드립니다. 펀드/변액보험/연금. 011-253-3747

여수령 기자

날마다좋은날은 △불교의료봉사단 반갑다연우와 확대 및 재해재단대비 봉사단 발족 △치과 이동 검진 버스 운영 △불교장애 상호(相助) 콜센터 운영 및 봉사단 교육 △불교경제단체 구성을 통한 불교 관련 산업 육성 방안 수립 △서울특별시 비영리 민간단체 지정사업인 '이웃과 함께하는 동지질' 등을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채택했다.

날마다좋은날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이사진으로 대거 영입, 7월 11일 신입 이사 위촉식을 병행했다.

## 시민단체, 징수 반대 활동 전개 문화재관람료 문제로 조계종과 갈등 깊어져

문화재관람료 문제로 시민환경단체와 조계종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대한산악연맹, 문화연대, 환경

운동연합 관계자 20여명은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월 10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개최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성명서

를 통해 “문화재관람료 부당징수 폐지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문화재 관람료 부당징수에 맞선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문화재관람료 거부운동 전국 확산 △‘문화재보호법 44조 1항’ 철폐를 위한 위험 소송 및 법률개정 운동 전개 등을 향후 계획으로 내놓았다.

남동우 기자

# “모든 사람의 운명을 내가 볼 수 있다!”

## 임상실험을 거친 독보적인 운명서 드디어 대공개!

- 단 한 시간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운명서
- 언제나 30초 안에 모든 일의 결과 예측
- 43만 가지의 인간사 즉시 결과 예측
- 한눈에 펼쳐지는 우주자연의 비밀
- 이제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완벽한 저자의 이론과 학문 완전 공개
- 역대 대통령선거 1년 전에 100% 결과 예측
- 역대 대형사건·사고의 운명적 해석과 증명



자신의 운명수와 궁합·전화번호와 궁합·자동차번호와 궁합·날짜로 보는 운명·부동산의 운명 등등 운명에 관한 모든 궁금한 사항들...

누구나 볼 수 있게 <단시표> 전격 수록!

총 1,152개로 세분한 단시표만 있으면 이제 누구나 모든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다!

열매출판사 Tel. 02-3142-0057(대) / Fax. 02-3142-4901

# 대한민국 운명록

·해평스님 저음 / 신국판 양장본 / 512쪽 / 값 25,000원 \*서점에 있습니다.

### 화제의 신간

## 해평스님의 전편 '운명비결'을 완전 보강한 새로운 운명서!

두렵다. 사람들이 승복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의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서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이 두렵고, 이 책의 내용으로 그동안 수천 명 이상을 상담하면서 보여줬던 경악할 만큼 들어맞는 결과들이 나오는 오히려 두려운 것이다.

### 역대 대통령 선거 1, 2년 전에 정확히 당선자를 예측, 그림 17대 대통령은 누구?

역대 대통령 선거의 1, 2년 전에 정확히 당선자를 예측해 낸 이론적 근거는 한 번도 예측이 빗나가지 않았으므로 계속 증명되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버린 대형사건·사고들... 8·15광복, 6·25전쟁, 5·16, 10·26, 12·12, 그리고 IMF 구제금융까지, 이 사건들이 율령으로 운명수 6이라는 똑같은 날짜에 발생한 기막힌 이유는 저자의 디지털화된 '대한민국 운명록'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

아는가?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가 같은 운명수의 날이고, 아웅산테러와 9·11테러가 같은 운명수의 날이며, 아현동 가스폭발과 충주호 유람선 화재가 같은 운명수의 날임을...

■ 저자 연락처 i4984@hanmail.net 다음카페 [금강선원 해평스님] T. 032-665-8472